

커지는 소득 격차... 심화된 소비 양극화

7000원대 커피는 대박, 마트 우유는 할인해도 안팔려

유통업체 고소득 마케팅에 백화점 명품 '나홀로' 호황

7000원대 커피는 대박을 내고 대형마트에서 할인해 파는 우유는 찾는 사람이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속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불황 속에서 갈수록 커지는 소득·자산의 격차와 유통업체의 고소득층 중심 마케팅 전략이 소비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할인마트 매출은 뒷걸음질하는 반면 부유층 고객이 찾는 백화점의 매출은 소폭 상승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1분기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산층 이하를 먹고 입는데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마트의 직원은 "대표 생필품인 우유는 가격을 크게 낮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라며 "특히 수입 향신료나 이색채소류 등 고급 품목보다 일반 생필품의 매출 부진이 더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찾는 백화점은 불황 속에서도 신장세를 이어가고, 백화점 명품류와 일부 호화품은 불황과 상관없이 호황이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봄 정기세일 기간 명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이 기간 백화점 전체 매출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해외명품 매출은 실적이 좋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1분기 해외명품 판매가 63%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다와 페라기모 등 브랜드 파

워가 강한 신규 매장도 영향이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결과다.

이런 명품류의 '나 홀로' 호황은 상류층, 이른바 백화점 VIP(최우수고객)들의 소비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고급·프리미엄 제품인 '스페셜티 커피'의 인기에서도 고소득층의 위축되지 않는 소비가 그대로 드러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고급커피 전문매장 '스타벅스 리저브'는 상위 7% 내 프리미엄급 원두만 사용해 6000~1만 2000원에 이르는 '비싼'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판매량이 개장 초기 보다 크게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유통업체들이 유일한 '비밀 언덕'인 고소득층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용량을 늘린 화장품 판매하는가 하면, 대형마트는 지역 유명 맛집을 유지하는 이색적인 방법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등 과열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이 양극화될수록 판매자들은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자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귀족 마케팅'에 나서는데 현실"이라면서도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없이 판매만을 위한 마케팅은 오히려 거부감을 자극,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독특한 디자인 패션 선글라스 인기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잡화매장에 대형색 다양한 프레임(frame)의 디자인을 가진 패션 선글라스 제품이 선보였다. 인기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SNRD, 라디오아이즈 등 독특한 디자인의 선글라스 브랜드가 인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4.79 (-1.92)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2)
▲ 코스닥 714.52 (+7.56)	▲ 환율 (USD) 1083.40원 (+4.20)

한전 우수한 기술력 세계가 인정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 금상 2개·특별상 '3관왕'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 팰레스포(Palexpo)에서 열린 '2015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에 2개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 2개와 폴란드 발명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 50개국에서 548여 점이 출품됐다.

한국전력은 한전 전력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3색광-음향센서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진단 자동튜닝 기술'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개발한 '케이블 열화측정용 커넥터 및 상간연결 장치'를 출품했다.

금상과 폴란드 발명협회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한 '3색광-음향센서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진단 자동튜닝 기술'은 광계측기법으로 가스터빈의 연소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상태를 정진기와 같은 동압센서만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기술은 동압센서와 더불어 내시경 역할을 하는 광계측센서로 가스터빈 연소기 내부를 직접 관찰해 화염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이다.

또 기존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장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한전 전력연구원의 가스터빈 고압연소시험설비에서 기술 검증도 완료했다.

함께 금상을 수상한 '케이블 열화측정용 커넥터 및 상간연결 장치'는 이중 케이블 3회로를 직렬로 연결해 케이블의 이상 여부를 동시에 진단하는 장치다.

회로별로 케이블을 진단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점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한전은 이날 초에 열린 '2015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에 출품한 원격검침시스템 관련 기술이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들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 국제적으로 잇따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수상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적극 홍보해 기술이전·제품수출로 관련 이어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은행, 전세·목돈 부담 해결 '안심형' 상품 출시

'스위트홈' 나와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1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 '스위트홈-전세금안심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상품과 은행의 전세대출을 결합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 상품을 통해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출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임차인이며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수준이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3.04%으로 신용카드 이용, 자동이체 거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통계청, 오늘부터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고용·실업률 파악

일·가정 양립정책 활용

통계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의 19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한다.

이번 조사로 만들어지는 시·군별 고용률과 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통계청은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사회보험 가입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들 통계는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사업 효과 분석에 활용된다. 두루누리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사 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올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 지표는 10월에 각각 발표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29일 조선대 해오름관서

상담 부스 운영·모의면접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옮길 예정인 10개 공공기관이 29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이전 완료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채용 예정 인원 3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0명), 한국농어촌공사(156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명), 한국전력공사(710명), 한국콘텐츠진흥원(5명), 한전KPS(262명), 한국전력거래소(미정) 등과 이전 예정인 농림수산식

품기술기획평가원(8명), 한국인터넷진흥원(50명)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과 일대일 상담을 해주는 기관별 채용 상담 부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오후 2시에는 기관 소개, 채용요강 발표, 모의면접 시연과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선재광 원장의 암, 고혈압, 당뇨 잡는 '체온 1도'에 주목하라!

MBN <엄지의 제왕> '체온 1도의 기적' 편 방영 화제작!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할 책! 현대판 동의보감 <천기누설> 10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신재광 저 | 1권 | 14,000원

천기누설 10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신재광 · 김달래 · 이광연 감수 | 17,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됩니다. 문의 070-7514-2659